# 광주·전남 기름값도 천정부지

## 광주 휘발유값 한달 새 12% 폭등

## '경유값 역전' 주유소 전체의 29%

지난주 서울지역의 휘발유값이 ℓ당 2천원을 넘어서면서 광주·전남지역의 휘발유·경유값도 폭등하고 있다.

특히 경유값은 불과 한달새에 17~18%까지 치솟은데 이어 휘발유값을 앞지른 '가격 역전현상'을 보인 업소들도 크게 늘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1천200여개소 회원 가운데 743개소가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유류 판매가격을 공개했다.

이날 광주지역(192개소 공개)의 경우 ℓ당 휘발유 판매가격 평균은 1천870.8원으로, 지난달 16일 가격공개 이전 1천671.38원에 비해 11.93%(199.42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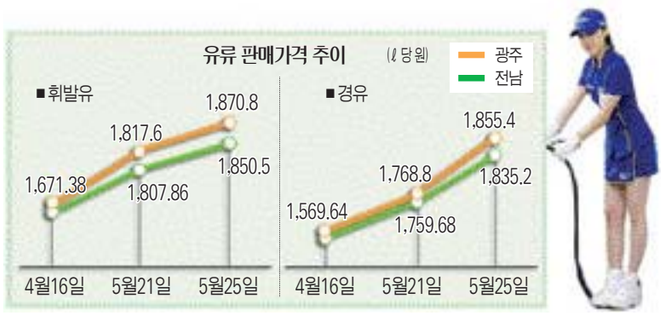
전남지역(551개소 공개) 평균가격은 1천850.5원으로 공개 이전보다 10.71%(179.12원) 상승했다.

경유가격은 휘발유에 비해 더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광주·전남지역의 ℓ당 경유 판매가격 평균은 1천855.4원, 1천835.2원으로 각각 공개이전보다 18.29%(285.76원), 16.91%(265.56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경유값은 휘발유값의 99.17%에 육박하는 등 턱밑까지 육박한 상태다.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앞지르는 업소도 지난주 10여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218개소로 전체 가격공개 주유소 743개소의 29.3%에 달했다.

광양지역 56개 주유소의 경우 휘발유=경유 5개, 휘발유<경유 35개로 나타났다. 특히 S주유소는 ℓ당 경유값이 110원, D주유소는 60원 앞질렀다.




지난달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ro.to)을 통해 주유소별 기름값을 공개, 경쟁을 유발해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기름값이 춤추고 있는 셈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특히 중국·인도 등 경유차량이 급증하는 등 경유 소비요인이 크게 확장되면서 국내 정유사들이 지난주부터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에 경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면서 "경유값 역전현상은 이번 주중 대부분의 주유소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는 정유사의 원유수입가격을 공개하고 적당한 마진을 적용한 판매가격 등을 일반에 고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주유소 상표표시제 고시를 철폐, 정유사간 경쟁을 통해 원가를 내리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광주세무서, 납세 신고 대기시간 반으로 줄인다

## 전직원 '신고도우미' 운영 … 납세편의 제공

광주세무서(서장 배춘호)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6월2일)을 맞아 '신고 대기시간 반으로 줄이기' 등 납세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신고도우미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고·상담창구의 PC 등 전산장비를 최신형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신고용 전용회선을 설치했고, 노약자·장애우 등 수동신고서 접수자가 신고창구에 접근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서 1 층 별관 입구에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원거리 관내인 화순·곡성 거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화순청년회의소와 곡성군민회관에 현지접수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주세무서는 세원관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사전에 서면안내해 신고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환급이 예상되는 소득자를 파악해 추가 환급신고할 것을 안내 중이다.

이와 함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어 환급이 예상되나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들을 위해 관내 대학교를 방문, 현지지도를 강화했다.

또 조류독감 피해농가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지리산 순한한우사업단

# 한우고기 소비확대 고객체험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회)과 지리산 순한한우사업단(단장 천창환)은 한우고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4일 고객체험행사를 가졌다. 〈사진〉

이날 체험행사에 참여한 30여명의 고객들은 곡성군 목사동면 민금농장을 방문, 위생적인 한우 생산시스템을 확인했으며 이어 나주 도축·가공공판장을 찾아 엄격한 가공과정을 견학했다.

강순덕(47·광주시 북구 양산동) 주부는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한우의 안정성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생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배웠다"면서 "앞으로 백화점 등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한우를 사먹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미분양 아파트 13만채 넘어섰다

## 12년만에 최대 수준 … 광주·전남도 1만2천가구

광주·전남 등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12년여 만에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특히 미분양 문제는 주택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등 건설업계 전반의 자금경색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업계 종사자들의 '부도공포'도 날로 커지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13만1천757가구에 달한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2월(13만5천386가구) 이후 12년1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이처럼 미분양이 쌓인 것은 2006년 이후 계속된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방의 경우 3월 한 달간 미분양이 2천480가구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5%까지 높아졌다. 최근 정부의 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등 시장 활성화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지난달 현재 1만2천125가구의 미분양이 쌓여 있다. 이는 지역에서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로,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4천462가구)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부도 공포'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택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 여파가 올 들어선 각종 현장 공사를 전담하는 전문건설업계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들어 전국에서 부도처리된 전문건설업체는 총 7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나 늘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은 올해 20개의 전문업체가 문을 닫아 지난해 총 부도건수(14건)를 이미 넘어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독거노인 공공임대

# '입주 쉬워졌다'

## 내달부터 보증심사 완화

앞으로 독거노인들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가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세대주에 대한 보증심사가 완화됨에 따라 일정한 소득이 없는 독거노인들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5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단독 세대주의 보증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임차자금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독 세대주가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소득증빙을 하지 못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 수출계약 업체 출장비 등 지원

## 광주시 '해외 세일즈사업' 전개

광주시가 해외마케팅 활동에 나섰던 기업들이 실제 수출계약을 맺기 위해 출국할 경우 출장비·업무 추진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해외 세일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외 세일즈 지원사업'은 해외마케팅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업체에게 해외 왕복항공료 70%를 지원하고 코트라(KOTRA) 현지 무역관 이용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또 업체의 현지 활동을 돕기 위해 신규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장 제공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해외 세일즈 지원 희망업체는 시나 코트라 광주전남무역관에 참가를 신청한 뒤 해외 출장 확인서(항공증빙자료)와 상담실적을 첨부해 코트라에 제출하면 된다. 오는 6월30일까지 광주시 경제정책과(062-613-3754)나 코트라 광주전남무역관(062-611-2811)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사업 시행 전인 올 1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세일즈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펼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도움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중소수출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정책을 꾸준히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